



##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익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시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http://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창세기 12:1-4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 여정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래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과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조급해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잠언 3:5-6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도	-----	다 같이
경배찬송	1장	다 같이
성서교독	35번 시편84편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8장	다 같이
기도	-----	1부윤태영전도사 2부 태영성 집사
성경봉독	출애굽기34:10	인 도 자
찬 양	시온성 향해 나아가라	성 가 대
설 교	하나님의 열심	박근상목사
기도	-----	인 도 자
찬 송	393장	다 같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이
헌금기도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이
축복기도	-----	박근상목사

### ■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34:10

##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노인숙 권사  
 말씀/ 최민관 목사  
 마:11장 28-30절) “예수님의 멍에, 참된 쉼”  
 찬송/ 539장  
 주기도문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서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 교회소식 ■■

1.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3. 주보 성경공부는 “ 기독교는 과연 이데올로기인가(2)”입니다.

.....  
 7월 27일(주) 을지병원예배  
 8월 9일(토)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중기 오종수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태영성	류민정/자녀감사
다음주	1층 김길근 이길연 2층 이화옥 송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흥룡 박 호	고상순(윤준영)/생일감사

청소담당: 2,3층 이번주(08,01) 01구역(천영순)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8,08) 02구역(이미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b>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b>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골 1장 10절 제 목 -에녹	활동 1.7월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2.8월 9일 성경학교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요.
<b>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b>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최정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골 1장 10절 제 목 -에녹	1.7월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2.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3.건강하고 계획적인 방학보내기
<b>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b> 사회자 -오한금채 자매 기도자 -조수아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4장 2-5절 제 목 -두려움 속 순종	1.8월 암송 말씀은 요한1서 4장 18-19절입니다. 2.8월 예배인도는 김다연 자매, ppt는 김형섭 형제, 8/17(주) 대표기도는 박해진 자매입니다. 3.8월 첫주에는 생일축하와 간식이 있습니다. 4.8월 첫주(3일) 월초기도회로 드려집니다.
<b>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b>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백지은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요한복음 21장 15-17절 제 목 -다시 시작하는 은혜	1.대표기도는 오나연 자매입니다. 2.8월 첫주에는 생일 축하와 간식이 있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 기독교 기본생활

본 내용은 대덕연구단지 직장성경공부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이다.

### 기독교는 과연 이데올로기인가?(2)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을 갖게하고 자기 정당화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을 기만하는 세속적 지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은 자신들은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비판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진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우츠바르트는 이데올로기를 이상송배의 통로(conduit)라고 규정했다. 이상송배는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라 증오, 차별, 연구주의, 지억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이용한다. 이들은 언론 통제나 방송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삼는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의깊이 보라. 1990년대 전 세계를 냉전체제로 몰아갔던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졌고 그들이 말한 유토피아의 환상이 깨어졌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북한을 보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녹슨 유물을 보고 있다.

그럼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무엇인가? 성경을 좋은 기본을 가지기 위한 알약으로 사용하고, 찬송도 즐겁기 위하여 부르고 기도가 단순히 목상이나 명상의 차원으로 흘러간다면 기독교는 매우 나약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다. 역사속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타협하고, 변형되어가고, 사라질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독교의 고백은 변치 않았다. 이 고백은 기독교 2천년 여간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탱시켜 온 근간(根幹)이며, 교회를 교회답게 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전하고 외쳐야 할 주제는 예수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복음이다.(행4:12)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욱 충실키 위해 우선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이데올로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사료된다.1) 번영(경제) 이데올로기: 물질적 번영의 목표는 번영의

수단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어 나가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의존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존기 위해 해야 하는 바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마 6:24). 성공과 번영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번영 신학의 주된 문제점은 신약에서 이상승배로 규정하고 있는 탐심을 방임(放任)한다는 데 있다고 보인다(골 3:5, 엡 5:5). 모든 가치를 재물에 종속시키는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도 일종의 번영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이만열 교수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라는 논박은 참고할 만하다. 실제로 올해는 일제의 토지조사령 공포 백주 년(두 개의 희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2) 안보(반공) 이데올로기: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가상의 적에 대한 집단적인 두려움(fear)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수반되는 폭력은 지배 질서에 순응하길 원치 않는 범법자들을 다스리는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된다(예: 긴급조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은 안보 이데올로기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신자의 경우 희년의 복음에는 자유의 정신만 아니라 평등의 정신도 함께 있음을 고려하면서,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행 2:44-45, 행 4:32-35).3) 권위주의 이데올로기: 이것은 아직도 동양사회에 팽배한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말한다. 이처럼 명령에는 익숙하고 토론에는 약한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는 불공평과 불투명성은 조장되고, 복음이 요구하는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성은 저해되기 쉽다. 이런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섬김보다는 지배를 선호함으로써 도리어 참된 권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막 10:45). 또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 부재 문화는 기독교의 탐욕에 휘둘릴 여지를 더 많이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혹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 기독교는 혼맥(婚脈)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3대 이데올로기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상호 제휴 관계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성적 이데올로기가 겨냥하는 목표는 '가치관의 혼란', 혹은 '가치의 혼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음의 가치에 더욱 부응하는 신자의 삶을 위해 분단국의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사랑, 정의, 평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본래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번영(경제)이나 안보(반공) 자체가 필요 없거나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고유한 기독교적인 가치보다 앞세워 절대화하는 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미 6:8, 마 23:23).

나눔식 소그룹 에스겔 10:9~22(7월 31일 본문)

##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찬양하기 \* 주의 영광 빛나니 (새 132)

Focus :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10:9~22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북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 왕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악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삼아 유다를 징계하셨고, 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 주시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임할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 말씀 나누기

#### 1. 관찰과 묵상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그룹 곁 네 바귀의 모양은 어떠했나요?(9~10, 12절)

---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교회 밖 나의 일상도 지켜보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경우였나요?

---

## 2. 관찰과 묵상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을 떠나서 어떤 문 위해 덮였나요?(18~19절)

---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내 삶과 공동체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죄를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뜻에 합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도록 기도합니다.

2. 브라질 북서부 아마존 지역에서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메모

본문:

제목:

##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뤄져  
 리기다려 하루 하루 살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풀때까지 기다려

##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박근상
-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 찬양인도: 최의석
-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황학성 이상열

## 담임목사 방송사역

- |          |              |                            |
|----------|--------------|----------------------------|
| 10 분 설 교 | 대전극동방송(FEBC) |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
| 주 일 설 교  | 대전기독교방송 CBS  |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
| 오늘의 은혜로  | 대전기독교방송 CBS  |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
| TV방송칼럼   | 대전CTS        |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     |

##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 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